

대한민국 최고 비보이 전주서 가린다

'제17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25일 개최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25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7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2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영광의 수석어와 함께 우승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추가로 수여돼 총 1800만 원의 대회 상금을 두고 치열한 배틀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그랑프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인 비보이전문예술법인단체 '라스트포원', 세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닌 대한민국 비보이커뮤니티 '코리안락'과 '인투더랩'이 함께 기획과 행사 운영을 맡아 대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대회 심사위원은 ▲라스트포원의 원



전주시와 (사)라스트포원은 지난 1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5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17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년 멤버이자 현 캐나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코치인 서주현(THAIYO) ▲대한민국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박인수(KILL) ▲대한민국 비보이씬의 전통 강호인 리버스크루의 조충훈(C4) ▲리듬무브먼트 대표인 김기현(DIFFER) ▲일본 베테랑 실력과 비결 AYU 등 5명으로 구성돼 브레이킹 배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부대 행사로 그래피티 시

연 및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피티 체험존이 마련되며, 행운의 톨렛 이벤트를 통해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기념 굿즈와 초코파이도 제공될 예정이다.

본 대회에 앞서 오는 18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제17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의 시작을 알릴 사전행사가 펼쳐진다.

'오픈스타일 배틀'로 꾸며지는 사전 행사에는 락킹, 워킹, 힙합, 하우스, 크랩프 등 다양한 스트리트댄스 장르의 댄서들이 한데 모여 공연을 펼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한 유명 댄서들이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비보이 그랑프리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게 된다.

한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라스트포원'의 독일 세계대회 우승을 계기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로 17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로, 본선 대회 입장권은 행사 당일(5월 25일) 오후 2시부터 지정좌석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김욱기기자



전주시지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폐현수막을 이용해 제작한 장바구니 50개를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폐현수막, 장바구니로 재활용

전주시지원봉사센터,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

버려진 폐현수막이 전주지역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장바구니와 도시락 가방 등 다용도용품으로 재탄생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지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지난 14일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회장 임소형)과 함께 폐현수막을 이용해 제작한 장바구니 50개를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했다.

전주시지원봉사센터는 탄소중립 실천 업사이클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과 협력해 버려진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와 도시락 가방으로 제작·기부하며 다용도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단은 도당산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 각 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기부

한 폐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와 도시락 가방으로 재활용하는 재능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능봉사단은 이날 금암노인복지관에 기부한 장바구니 50개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도시락 반찬 전달에 사용될 도시락 가방 200개도 전주시지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한 알뜰맘 재봉틀 재능봉사자는 "폐현수막이 장바구니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의 손에서 새로운 용도로 쓰이는 것을 보면 뿌듯함과 기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이천 사단법인 전주시지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선한 실천이 봉사자 자신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으로, 지역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으로 순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기자

전주종합경기장 부속건축물 철거 본격 착수

이달 중 업체 선정되는 대로... 주경기장은 11월 착수

전주시는 지난해 야구장을 철거한 데 이어 이달부터 종합경기장 부지 MICC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종합경기장 철거공사는 주경기장(3만5594㎡)과 전주푸드(1057㎡), 수위실(100㎡) 등 총 연면적 3만675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공사로, 사업비는 약 1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까지 건축

위원회(해체계획) 심의와 기술자문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이달 중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오는 8월까지 부속건물이 철거되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주요 행사 개최 후 오는 11월 주경기장 철거를 위한 공사에 재착수해 내년 6월까지 모든 철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철거 공사가 중지되는 기간 중

합경기장 주경기장 건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대표축제인 얼티밋뮤직페스티벌과 가막축제(8월), 전주페스타(10월) 등 지역 문화축제와 시민 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81년 현재의 모습으로 증축된 전주종합경기장의 내부 천장재와 칸막이 등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시공돼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선 석면철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작업은 오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기간 중 출입이 전면 차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종합경기장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1월 전주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의 완료하고, 전시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약정체결로 타당성 조사에 돌입하였으며 중앙부처에서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과 전시킨벤션센터 건축기획용역을 병행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7월 건축실계를 위한 공모절차도 추진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 본격적인 개발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안전보건 교육

전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성)는 본격적인 올해 총사업비 8100만원을 투입해 전주시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 23종을 지원하는 등 농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전주농협 5층 강당에서 권규식 교수(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강사로 초청해 품목별 농업인과 품재배 농업인 등 전주시 농업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또 이날 농작업 재해안전 예방교육 참여자에게는 팔토



시와 모자, 진드기약, 잠잠 등 실습용 개인보호구도 지원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욱기기자

구체적으로 시는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농약 안전 사용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은열질환 및 근육격계 질환 예방 방법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 등을 실시하고, 진드기 기피제와 잠잠, 발도시, 스트레칭 매트 등 농작업 안전 및 보호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작목별 농작업 위험 개인보호구도 지원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질병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주덕진소방서,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4일 여의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인 아미고의집(원장 윤란다수)을 방문하여 119안전복지 나눔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다 함께 참여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점검과 시설 종사자 및 생활인 대상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 전주덕진소방서 전 직원이 모은 안전복지 기금으로 생활아동의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전달했으며, 아미고의집 주변 환경정리 등을 실시했다.



또한 조흔의용소방대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생활용품들을 구입·전달하여 다 함께 참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강동일 서장은 "주민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모금한 뜻깊은 기금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운영해 보람차다"며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